

— 국민은 이렇게 본다 —



기름恐怖, 누굴 원망해야 하나

裴 秉 杰
(毎日經濟·産業部長)

貧者속의 가진자

우리는 너무나 할 것없이 石油에의 怨怖를 느끼고 있다.

73년부터인가 石油는 살인적인 무기로 인식되어 왔다. 石油를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면서 이를 못가진 자는 무조건 굴복해야 한다는 힘의 원리를 터득하기도 했다.

新聞記者가 石油공부를 해야할 절박한 필요를 느낀 것도 이때부터였다. 터놓고 이야기 하자면 속스럽지만 産油國이나 OPEC를 좀 두들겨 주고 싶은 충동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新聞記者의 오기는 별 것이 못되었다. 기름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는 그들의 오만불손은 아무도 꺾지 못한 것이 이 시간 현재의 국제적 상황이다.

우리는 행여 우리 땅에도 기름이 나올 수 있려니 애타게 기다려 보았다.

포항 油徵說에 한때 흥분했었고 大陸棚시추에 한껏 기대했었지만 수포로 끝났다. 다시 올해는 5소구 시추를 시작한다고 떠들지만 이젠 너무 속아 흥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태고적 요행이 주어졌다면 나오고 말 것이지만 또 속을 것만 같아 두렵다.

우린 기름 못가진 것을 한탄했지만 한가닥 타고난 복을 자랑하는 입장이다. 석유가 솟아나는 사막에는 물이 없다. 「오일·머니」가 아무리 넉넉하다지만 중동사람들이 우리만큼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팔자는 되지 못했다.

우리는 단군 이래 적당히 내리는 빗물로 사시사철 풍족하다. 사막에 사는 이들이 돈으로 사들이는 물값을 환산하면 기름값 몇천배에 비유되는 富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기름 못가진 자에게 이런 복을 내린 하느님의 공평무사한 배

분에 부러워할 사람은 오히려 그쪽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萬福을 타고나도 이웃사촌 잘 못 만나면 서글퍼진다.

「메이저」가 上陸한 후 우리는 貧者 무리 속에 기름 넉넉한 자로 행세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정유공장 사장이나 대리점 주인이 스스로 뽐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추위에 떠는 사람들 눈에 기름 가진 사람들로 보인 것이 문제였다.

엄동애 기름보일러 돌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면 불가피 정유회사를 나무란다.

멀리 있어 손도 닿지 않는 OPEC(석유 수출국기구)보다는 가까이 있는 기름회사가 질시의 과녁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아예 터놓고 욕을 하게 된다. 油公을 비롯하여 湖南, 京仁등이 욕을 많이 들어 쓴 회사명칭이다.

기름값은 지난 70년 3월이래 무려 16회나 오른 것으로 기록되었다. 年平均 1.6배나 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메아리 없는 항거를 받았는지는 기름회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OPEC가 원유값을 올리니 국내 석유값을 올려야겠다는 주장에는 대꾸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와 기름 회사를 싸잡아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을 그쪽도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雙龍과 極東 등 정유회사가 늘어나도 소비자들한테 싹싹해 지지않고 고자세인 것만 같아 섭섭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물건을 팔자면 선전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접을 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법인데 정유회사들은 그러지를 않는다.

일방적이고 편하게만 장사하는 것 같아 공연히 비위가 상했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걸프에의 反感

정유회사에 대한 바르지 못한 선입감이 왜 생겨났을까?

한때 메이저가 우리나라 석유행정을 쥐고 흔들 때 뿌리를 내린 反感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생각해 본다.

석유때문에 속이 상할 때마다 메이저를 받아 들인 사람들은 모두 한 통속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누굴 위해서 메이저 편을 들어 주느냐고 정유회사들을 오해한 것도 기분상 어쩔수 없었다.

이제 지나온 이야기로 털어 놓는다면 걸프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깊었던 때문인 것만 같다. 걸프는 처음 고마운 인상을 주었다가 나중에 무서운 수법을 보여 주었다. 걸프 有罪論은 국제적인 석유장사들의 교묘하고 철저한 장사속 때문이었다.

실상 걸프는 메이저 측에 끼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메이저라는 저항받는 그룹속에 포함되어 욕을 더욱 크게 먹었다. 걸프가 웃음을 잃고 돌아간 것은 보내는 쪽도 기분좋은 일이 못되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에 정을 심기도 했지만, 떠날때 유쾌하지 못한 것은 양편의 불행이었다.

걸프는 60년대초 한국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왔다가 번영의 꽃이 필 때 돌아갔다. 62년 10월 油公이 설립되었을 때 우리에게 資本도 技術도 經驗도 전무했다. 정부의 재정규모도 형편없던 시절 무얼 믿고 한국에 投資하랴 싶은데도 걸프는 과감히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칼텍스, 엑슨, 셸, 모빌 등 유력회사들과 교섭을 벌였지만 모두 고개를 내저었다. 유독 걸프만이 구세주처럼 나섰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첫 정유공장이 64년 가동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걸프의 우호적인 협조 때문이라 해도 과찬이 아니었다.

하루 원유처리능력 3만 5천배럴의 이소규모 공장이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오늘의 한국 정유산업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걸프의 위험한 결단은 매우 뛰어난 성과를 거

둬들이는 성공을 가져왔었다. 걸프의 성공으로 당초 對韓投資를 거절한 다른 메이저관계자들은 문책을 당하는 곤욕을 치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만큼 걸프는 초기투자자의 과단성 하나로 알찬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위이어 칼텍스와 유니온, 모빌, 셸 등이 다른 창구를 통해 끝내 한국에 上陸한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걸프는 처음 株式 25% 인수와 건설차관 2천만달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合作投資 및 차관 계약에 동의했다. 이는 우리나라 첫 合作事業의 기록이기도 했다.

걸프와의 계약은 原油供給계약에서부터 運送 계약, 技術用役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8개 基本協定에 달했다.

계약명칭에 나타나듯 맨주먹이었던 당시 재정형편을 반영, 우리정부가 걸프에 매달린 계약이었다.

나중에 두고 두고 발성이 되었던 不平等 계약이었지만, 매달리는 입장에서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정부로서는 投資調達능력이 부족했고, 信用과 技術이 없었고, 더구나 메이저가 독점하고 있던 원유도입이나 수출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油公에 투자한 걸프의 지위는 가히 上典이었다. 정유정책담당자들이 걸프를 깎듯한 예우로 맞고 그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인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이 시절 걸프측 고위당국자는 청와대와 중앙청을 별다른 제재없이 들락거렸고 주무부장관은 호텔에서 接見하고 말았다. 그러나 걸프는 당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對外信用이 높아 가는 것을 모르는척 계속 얹잡아 보았다. 칼텍스와 유니온이 보다 협조적인 자세로 뒤따라 왔을 때도 걸프는 초기투자자의 공적만을 계속 우려 먹으려 했던 것이다.

원유에서부터 수송과 정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익을 뽑아 내겠다는 걸프의 정책은 어쩌면 짧은 거간에 한탕 하겠다는 기분이었는지 모른다.

이익이 적은 부문에의 투자는 아예 정부 요

구를 목살하려 했다. 정유부문을 28만배럴까지 확장한 것은 이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나프타分解센터 건설에는 정책당국자들의 뉘를 뺄 만큼 몇차례나 흥정을 부렸다.

72년 10월 에틸렌 기준 10만톤의 나프타 분해 센터를 완공했을 때는 油公의 경영권이 걸프에 넘어가 있었다. 걸프는 주식투자 2천 5백만달러, 차관 2천 3백만달러로 油公의 주인석을 차지하여 지난해 8월 19일 철수시 까지 재정, 인사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걸프의 전성기는 10년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느날 갑자기 걸프 고위층이 장관실에 나타났을 때 面談거부를 당하고 평소 관심 리스트에도 올리지 않았던 국장에게 마저 잠깐 대기하라는 차가운 대접을 받는 날이 오고 말았다.

이 때가 70년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걸프로 하여금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두고 자진 철수토록 결심하게 작용한 중요한 신호가 되었음이 분명했다.

걸프는 마지막 시간까지 한국정부가 옛 공적을 평가하여 붙잡아 줄 것을 기대했던 눈치지만, 그것은 너무나 기대 밖의 환상이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메이저 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교훈이기도 했다.

油公 19년의 功過

설령 걸프는 미워도 油公속에 걸프가 남긴 공적은 파소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걸프의 독선에 따른 견제와 마찰을 통해 정유산업은 제대로 성장력을 길렀는지 모른다.

日産 3만 5천배럴을 28만배럴까지 확장하면서 油公은 국내 최선발기업의 위치를 고수하며 좋은 자료와 교훈을 후발기업에 전해 주었다.

또 현재 정부인가를 받아 놓은 제 4 상압 증류 시설을 완공한다면 油公은 日産 43만배럴의 세계적 규모의 정유공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油公이전에 일본인이 설립한 朝鮮石油의 元山공장이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뿌리라는 기록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실상 국내 석유통제는 油公의 蔚山공장이 가동한 64년부터 잡혀 있다.

이는 油公이 정유산업사의 원년을 기록 했음을 말해 준다.

지난 70년대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動力源이 바로 정유산업이었음도 통계에 나타나 있다.

즉 年 20%이상 계속 증가해온 석유류소비실적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산업용의 대표적 유종인 벙커C油는 64년 연간 9만 4천배럴에서 79년엔 무려 9천 2백만배럴로 늘었다. 배수로 따지면 9백82배에 해당된다.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는 64년 전무 상태에서 79년 1천 9백만배럴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석유류 소비가 늘어난 것은 왕성한 공업성장을 정유산업이 뒷받침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油公에 이어 湖南이 64년 설립되고 京仁이 72년 발족하면서 정유산업의 3社 시대가 열렸다. 그 사이 정유분야에 대한 재벌 간의 세력전이 치열했던 사실은 油公이 개척한 정유산업의 인기도를 말해주었다.

油公은 처음 국영기업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와 鮮京인수를 통한 완전 민영화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걸프주식 매각을 전후한 숨은 말썹이 표면화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石油持株会社の 금년 주총 유회사태로 밝혀진 회계방식변경에 따른 논쟁은 결국 걸프가 철수하면서 깨끗한 매너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로 거의 귀결되었다.

先入先出방식이 옳으나? 後入先出방식이 옳으나? 는 쉽게 결론이 안나지만 분명한 것은 걸프가 보따리를 챙기면서 제 양껏 이익을 뺏아간 것은 확인되었다.

차관으로 갚아준 9천 5백만달러를 송두리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걸프로서는 숫자상의 가공이익을 결산, 이익을 창출해 내는 계산 솜씨를 발휘했던 것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원유값이 계속 뛰고 있을 때에 先入先出방식으로 이익을 내도록 해서 정유회사가 버틸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 본다.

걸프는 지난 79년까지 5천 1백만달러의 파실송금을 기록했다. 투자회수율로는 1백 72.8

%에 해당된다.

또 油公으로서도 가동 첫해부터 순익을 내는 순탄한 코스를 걸었다. 77년과 78년에 적자를 냈지만, 76년엔 1백59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에 비해 湖南은 첫해 9천만원, 京仁은 가동 후 4년간이나 적자로 결산했다.

그러니까 결프와 함께 油公은 후발기업에 비해 매우 유리한 과정으로 성장한 것으로 비교된다.

그러나 최근엔 각사가 아무리 외형을 늘려도 적자라고 울상을 지으며 모두를 겁나게 해 준다.

미국 포춘지 랭킹에 오를 정도로 매출액이 큰 기업체가 적자라는 것은 우선 넌센스라는 생각이 앞선다.

비싼 값에赤字압력

지난 해의 경우 油公은 1조 8천억원 매상에 5백 76억원이 결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湖南은 7백36억원, 京仁 1백49억원 雙龍 4백20억원, 極東 67억원 등 모두 1천 9백48억원이나 적자였다고 결산했다.

도대체 기름값이 얼마인데 정유회사는 모조리 적자였다니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기름값이 맹물보다 싼 나라도 있다는데 매년 두세 차례씩 오르지만 하는 우리 기름값을 어느 나라에 비유할까?

유황분은 적은가? 지독한 公害물질을 섞어 파는 저질기름을 비싸게 팔고 적자보았다면 더 이상 어찌자는 이야기인가?

이 술한 의문에 정부나 기름회사가 자신있게 내놓는 대답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값을 깎을 수 없는 원유 사정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그렇지만 나쁜 원유, 비싼 기름이나마 뒷박살처럼 꾸어다 먹는 신세는 너무 한심하다.

요즘은 물량이 남아돌고 정유시설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데도 급박한 원유핑제 하나로 버티자는데 설득받을 수는 없다.

배럴당 30달러 짜리와 40달러 짜리를 한꺼번에 묶어 비싼 값으로 책정해 놓고도 정유회사 걱정만 해주는 것이 行政力 不足이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지 않은가?

듣기 좋은 말로 가격안정을 위해 安定基金을 마련했다지만 정유회사 적자보전 아니고 무슨 기여를 했는지 궁금하다. 또 원유시장사정이 항

상 위태롭다지만 비싼 원유를 기준으로 기름값을 책정하는데 누가 싼 원유 사려고 애쓸까?

심지어 기분 내키는대로 응찰하여 40달러를 월선 넘게 사와도 외교적 성과라며 받아 주는데 安定基金이 안정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젠 지나간 이야기지만, 국제 석유브로커나 상대하고 現物시장이나 기웃거리는 솜씨로는 될 일이 아니었다.

비싼 원유 사오도록 한 安定基金이나 한국이 온다는 전갈을 띄워 값을 올려주는 無情報로 어 물어볼 넘겨야 할 일도 아니었다.

숨바꼭질하듯 남고 모자라는 시설대책도 그렇다.

모자랄 때 착공했다가 넘칠 때 준공하는 증설 공사는 항상 타이밍 못맞추기로 유명하지 않은가? 증설쿠퍼를 딸 때는 서로 싸우다가 아쉬운 부탁받아야 움직이는 업체의 생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뭇돈 끌어 넣어 비싼 이자와 끝없는 실랑이 벌여온 지금, 80만배럴 가까운 설비에 50만 배럴 밖에 가동 못하는 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産油國초청 제 1호는 혁명 와중에 가버리고, 결프는 밀려가고, 이제 믿을 것은 우리 실력뿐인데 누구를 믿어 볼까?

종합상사들이 가는 곳마다 성의있게 매달리고 있는 모양이지만 日本상사들처럼 훤히 알고 덤비는 경우가 못된다. 日本상사가 먼저 다녀간 뒷길을 수소문해서 노다지잡았다고 자랑하고 보면 뭉쓸 조건들만 남아있다.

한군데 여럿이 물려 가면 흥정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것도 말이 아니다.

공해 방지나 비축시설도 하루를 넘길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 메이저없이 순수민족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키워 주는 일이 중요하다.

가격안정이야 더 말할 나위없이 긴급한 정책 과제이다. 세금을 조정해서 인상폭을 낮추거나 유종간 격차를 합리적으로 손질해서 안정시킬 수는 없는가?

어떻게하든 석유공포에 짓눌린 우리모두에게 얼마만큼이나마 위안받게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